

오피니언

테마칼럼

건강과 생활

교육을 생각한다

문화와 창조

도시와 삶



노경수

“

광주시가 명실상부한 호남권의 중심도시로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남뿐만 아니라 국내 도시들과의 연계체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가장 중요한 도시관계는 광주의 통근·통학권, 즉 광주와 매일 생활권 내에 있으며 광주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배후도시이며 광주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 나주, 화순, 담양, 곡성, 장성, 영광, 함평 등 전남의 7개 시·군이다.

”

며칠 전 '호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제3차 회의'가 광주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는 '5+2 광역경제권 사업'이 갖고 있는 중앙정부에 대한 요청의 관점에서는 같은 입장을 보였지만, 호남권의 상호 기능분담이나 상생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로 인해 심도 있는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외되고 어렵던 시절에는 전남·북이 광주를 중심으로 호남이라는 공동경제권을 형성하며 중앙정부와 영남에 대응했지만, 1990년대 이후 대중국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서해안 축이 국가 발전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DJ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스스로 이익을 찾아 떠나다 보니 광주는 훌륭된 형국이다.

전북은 새만금사업 추진에 목숨을 걸면서, 남쪽 광주보다는 오히려 북쪽에 있는 대전의 대역 단지와 앞으로 만들 예정인 서해안 개발 축이 아니라 세종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듯하다. 전남은 MB정부의 역점사업인 남해안 선벨트 국제관광사업의 구심점으로 통영(경남)에서 여수로 들어오기 위해 여수엑스포의 성공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미래의 전남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남해안지역에서 창출하고자 하는 듯하다.

광주시가 명실상부한 호남권의 중심도시로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남뿐만 아니라 국내 도시들과의 연계체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가장 중요한 도시관계는 광주와의 통근·통학권, 즉 광주와 매일 생활권 내에 있으며 광주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배후도시이며 광주를 둘러싸고 있는 나주, 화순, 담양, 곡성, 장성, 영광, 함평 등 전남의 7개 시·군이다.

군이다.

이들 도시는 광주에서 주변 시군으로 통근하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광주로 통근하는 사람들보다 현재까지는 많으며 이들 도시들은 광주에 대해 동질감과 파악의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광주는 행정구역 경계의 틀에서 벗어나 이들 지역을 과감하게 포용하는 공동체 의식으로 관계 정립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에도 아직까지 균형발전과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상호 협력 네트워크 기반이 없어 전략계획으로서의 선언적 의미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각각 악진이 아닌 상생방식의 공동발전 전략을 모색하여 지역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미래를 향한 광주도시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야 한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인 빛가람도시와 협평과의 경계에 추진중인 빛그린산업단지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두 번째 광주와 전남 지방도시간의 관계 정립이다. 광주와 전남은 역사적으로 한 뿌리를 이루고 있음뿐만 아니라 지역정서나 지역문화가 동질적이어서 상생협력 추진에 따른 장애요소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시대에 상호 협력을 통해 세계 광역권으로 도약해야 하는 것은 명확한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주 스스로 경쟁력을 갖춘 국제도시가 되기 위해 최선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전남도 역시 광주의 이러한 노력에 큰 힘을 더해야 한다.

셋째, 국가정책사업에서 자주 경쟁하는 대전이나 전주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내륙

도시라는 유사한 성격을 갖는 이들 도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들 도시에 대해 객관적으로 장단점을 분석해서 광주는 그 비교 우위에 대해 차별화·고급화 정책이 요구된다.

넷째, 영호남의 대표적인 대도시로서 특유의 정치적 성향이 강한 도시들이 부산·대구와의 관계이다. 중앙정부에서 불 때 우리나라 대도시 중 광주·부산·대구는 가장 고민거리이다. 어느 한 도시에만 뛰어 줄 수 없는 형편이다. 최근 광주와 대구에 지정되는 R&D 특구계획처럼, 앞으로도 광주는 부산·대구와 다양한 형태의 연합전략을 통해서 상호 이익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2014년 KTX 개통을 앞둔 이 시점에서 광주가 서울에 대해 가지고 있던 위상을 재설정하자는 것이다. 서울이 우리나라 모든 분야의 1등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 서울과의 직접 경쟁을 피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서울과 협력하는 '2등 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강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분야에서만 1등을 노리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

한 몸처럼 움직이던 호남권이 이제는 광주와 전남·북으로 각자 분화되는 현상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광주가 대외 도시들과의 관계를 재설정해 광역적 협력의 이점을 인식하고 또한 공동의 목적달성을 위해 상생적인 시너지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칼럼



시동

12월은 세월을 매듭짓는 종점의 의미가 있다. 그런데 나에게 있어 그 종점은 언제나 가까스로 와 닿는 하나님의 강기슭 같은 것이어서 거기에는 남들이 흔히 말하는 절망감이나 후회 같은 것은 없어야겠다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한다. 백 미터 경주에서 가진 힘을 다 해 뛴 사람은 4등을 했다고 해서 후회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일 것이다. 노새는 누구나 제각각 단거리 선수다 되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뛰고 있다. 산다는 것은 곧 뛰는 것을 의미한다. 더 이상 어디에다 채찍을 가하고 무엇을 뉘우쳐야 한다는 말인가.

생각했다.
그리고 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모두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 세상을 떠나려니 생각하면 금세 가슴구석이 저미어 온을 감지한다.
나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매정한 사람이라는 말을 가끔 듣는다. 나는 그들을 향해 늘 상냥하게 웃는데 도 나를 냉정하다고 말한다. 한 가지 악은 일에서 다른 한 가지 일로 몸과 마음을 회전시킬 때도 적잖은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다. 편력과 경학을 갈망하는 속성을 가진 수행자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끊임없이 체념하고 끊임없이

두고 떠나는 마음

종점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무심코 주변을 휘둘러보기도 하고 자신의 텅빈 눈을 허탈한 눈으로 내려다보기도 할 것이다. 내가 왜 무엇을 위해서 뛰었던가. 회의에 빠진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으니 장차 빚을 것도 없는 공백한 두 손, 이것은 어쩌면 자유를 의미한 것이며 이 세상 모두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은근히 시사해 주는 의도가 아닐까.

나는 이런 자자연 일들에 관련은 없이 살고 있지만 훌쩍 두고 떠나는 연습을 하면서 산다. 가령 원고를 쓰다가도 어디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 치면 그만 원고지를 덮어두고 그냥 빈손으로 불쑥 떠나와 버리고 만다.

어느 날인가도 훌쩍 떠나고 싶은 충동에 뛰어나갔다가 돌아와 책상 위에 쓰다만 편지를 보고 쏟았음을 지은 일이 있다. 편지를 두어 글자만 더 쓰고 봉투만 봉해더라도 한 가득 글의 편지를 지어졌을 원고를 그만큼에서 내동댕이쳐 놓고 나가버렸던 것이다.

불혹을 넘어서 한 대학교수가 큰 공장을 새로 짓고 빛에 시달려 동분서주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두 손을 털털 털고 눈을 감아버렸다. 나는 나의 미완성의 편지에 어미를 적어 넣고 문장을 완성하면서 문득 그렇게 가버린 P교수를

포기하는 생활의 연속 속에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아주 떠나버리는 연습,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연습을 빙순이 되는 연습을 조금씩 해온 것이다.

세상이 불안할 때 가진 것을 손에 움켜쥐느라 안간힘 할 것이 아니라 두 손을 활짝 펴고 같은 가라고 놓아줄 수만 있다면 우리의 빈손에는 평화와 자유가 가득 담길 수 있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그러나 그 자유는 언제나 고독을 벗어 하며 적극함으로 동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세월이 나를 퇴화시켜 나의 뒤편으로 빠르게 흘러 가버리는 것을 올해처럼 아프게 느낀 적은 일찍이 없을 성적이다. 더구나 수행하는 비구가 연령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은 불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어차피 움켜쥘 수 없는 것이 세월의 바람에 나는 두 손을 활짝 펴서 그것을 자유롭게 날려 보내 주리라. 과거로 뻗은 나의 희미한 발자국을 결코 뒤돌아보지 않아야겠다.

세월이 우리를 두고 거침없이 흘러가 버리듯 우리도 멀지 않아 모든 것을 남겨두고 거침없이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장성 백양사 주지〉

기고



김광섭

우리나라도 경제적 성장과 함께 의료 등 사회적 환경이 좋아져 이제 장수 국가가 되었다. 지금 중학교에 다니는 우리 자녀는 평균수명이 90을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같은 장수시대를 대비하여 삶의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첫째가 건강이다. 건강의 기본은 매번 식사를 거르지 않고 먹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 아이들의 현실을 보면 아침 식사를 거르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 부모들은 내 자녀가 학교에 가는 공부를 잘하여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못내

테스트와 학력 상황 조사의 상호 분석에 따르면 모든 교과에서 아침식사를 '반드시 먹는다'는 학생의 정답률이 '먹지 않는다'는 학생의 정답률을 웃돌았고, 특히 수학과 영어에서는 차이가 현저했다는 것이다. 아침을 거르는 중학생의 수학 학력은 식사를 빠뜨리지 않고 먹는 중학생의 6할 정도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시교육위원회도 지난해 11월 시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학력 진단 테스트와 동시에 양케이트 조사를 실시했다. 중학생의 아침 식사 섭취 상황과 각 교과의 정답률 비교에서, 수학은 '반드시 먹는

건강하게 공부하려면 아침밥 먹어야

아쉽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아침 식사부터 쟁겨주는 부모의 모습을 잊지 않아야 한다. 지금 일본에서 '아침밥 먹기 운동'이 한창이다. 왜 그럴까? 이유는 자녀의 건강 정도에 따라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아침 식사를 거르면 학력이 떨어진다. 아침밥이 두뇌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공급해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침을 먹지 않으면 두뇌활동이 느려져 집중력이 떨어지고 학습의 집중도는 물론 기억력이 떨어진다. 지난해 미국에서도 학교 아침 식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결과를 분석한 결과, 수학 성적과 읽기 능력, 기억력과 인지 속도가 향상되고 시험 성적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나라 일본 카와사키 교육위원회가 실시한 학습 진단

〈광양여자중학교 교장〉

목욕탕 질병 가능성 높아 예방 대책 필요

최근에 병원에 갔다가 의사선생님으로부터 간염이 쉽게 전염될 수 있는 공간 중 하나가 바로 목욕탕이라는 사실을 듣고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항문질환과 부인과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따뜻한 물로 좌욕이라는 비수술적 치료를 하게 된다. 이런 환자들이 공중목욕탕에서 좌욕을 하게 되면 간염같은 각종 전염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한다.

세월이 우리는 두고 거침없이 흘러가 버리듯 우리도 멀지 않아 모든 것을 남겨두고 거침없이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장성 백양사 주지〉

시설

'날치기'로 또 날아간 광주·전남 현안 예산

한나라당이 3년 연속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국회 상임위 등에서 반영되거나 증액된 광주·전남지역 현안 예산이 무더기로 누락 및 삐갑돼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됐다. 국회가 통과시킨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광주시의 국비 지원 예산은 1조4668억 원, 전남도는 7조895억 원이 반영됐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당론을 사수하기 위해 현안 예산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식이든 자유로울 수 없다. 한나라당 또한 여수엑스포나 F1 대회 같은 국제적 사업 예산까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처사는 지역민심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광주시의 경우 문화콘텐츠기술(CT) 연구원 설립 10억 원, 진곡산단 진입도로 개설 100억 원, 경전선(광주~순천) 복선 철도화 사업 50억 원, 광주 나들목 확장 20억 원 등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손을 놓아야 할 형편이다.

전남도 역시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사업비 432억 원, 목포~광양 간 고속도로

로 800억 원 등이 예결위에서 삐갑되고 여수산단 진입도로도 당초 요구액의 절반인 500억 원만 반영되면서 여수엑스포의 성공 개최가 불투명하게 됐다. F1 대회 지원 예산도 추가 공사비 308억 원이 전액 누락된다. 운영비 또한 200억

원만 반영돼 내년 F1 대회도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

우리는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정치권의 극한 대립에 따라 한나라당의 단독 예산 통과가 예견되는 만큼 지역 현안 예산의 대규모 삐갑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누차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당론을 사수하기 위해 현안 예산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식이든 자유로울 수 없다. 한나라당 또한 여수엑스포나 F1 대회 같은 국제적 사업 예산까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처사는 지역민심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들 현안은 광주·전남의 미래를 결정할 주요 성장동력이라는 점에서 예산 확보는 절대적이다. 정부 추경이나 특별부세를 통해 마련하는 방안 등 다양화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차치단체는 물론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등 정치권의 분발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농협중앙회가 885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에 건립중인 광주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출범도 하기 전에 빠져있다고 여겨지면서 예상보다 일찍 개장이 예상된다.

농협은 시공사가 기관을 대체해 낸 4개월 만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장기적인 개장 차질은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다.

농협은 시공사에 대해 지난달 공사 중단을 통보했다고는 하지만 법적 대응 등을 통해서라도 보다 일찍 시공사를 바꾸어야 했다. 언제까지 이미 시공능력을 상실한 시공사에 끌려갈 수만은 없지 않은가. 하루빨리 공사가 재개돼 광주유통센터가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 주기를 기대한다.

無等鼓

영암군 신북면 양계리 금동마을에 가면 '똥배미'라는 논이 있다. '똥'에 대한 논을 의미하는 '배미'가 불은 말로 유래는 조선시대 연산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봄집이 크고 정력이 선 여자를 찾아오라'는 연산군의 명을 받은 채홍사가 이곳을 지나는 한 가운데 놀이 큰 땅덩어리를 발견하고 수소문한 끝에 찾았지만 최부리의 딸을 팔아 끌어온 것이다.

전북 정읍시 과교동에 있는 '페다리'는 이 다리를 건너야만 과거에 학교로 가는 속설이 전해지는 곳이다. 경북 문경시에 있는 '책바위'를 지나해 둘을 던져 맞추면 과거에 붙는다는 유래와 비슷하다.

똥배미와 페다리는 모두 삼남대로를 걸어야만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삼남대로는 조선시대 9대 간선도로의 하나로 한양과 호남을 잇는 도로였다. 1770년 흥봉한이 편찬한 '문헌고기'에는 삼남대로의 주요 지점을 서울~삼례~전주~태안~정읍~나주~강진~해남으로 기술하고 있다. 오늘날 국도 1호선과 국도 13호선이 바로 개발로 흔적이 사라진 삼남대로가 복원된다고 한다. 전남도와 한스포츠회사가 2014년까지 복원할 예정인데, 전남지역 구간 220km 가운데 해남 땅끝에서 강진~해남까지 6